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 입 당 | 예물 준비 | 영성체 | 파 견 |
|-------------------|-------------|------------------|--------------------|
| 88 (임하소서 구세주여) | 340 (봉헌) | 170 (자애로운 예수) | 89 (주 하느님 자비로이) |

제 1독서 | 스바냐 3,14-18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네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네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화답송 |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좌)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우)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좌)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 2독서 | 필리피서 4,4-7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3,10-18

오늘의 전례 해설 |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저지르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타협하던 크고 작은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 돌아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스바 3,14).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필리 4,4). 예수님의 성탄이 다만 해마다 돌아오는 '기념일'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탄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Today's Gospel - Luke 3:10-18

The crowds asked John the Baptist, "What should we do?"

He said to them in reply, "Whoever has two cloaks should share with the person who has none. And whoever has food should do likewise."

Even tax collectors came to be baptized and they said to him, "Teacher, what should we do?"

He answered them, "Stop collecting more than what is prescribed."

Soldiers also asked him, "And what is it that we should do?"

He told them, "Do not practice extortion, do not falsely accuse anyone, and be satisfied with your wages."

Now the people were filled with expectation, and all were asking in their hearts

whether John might be the Christ. John answered them all, saying,

"I am baptizing you with water, but one mightier than I is coming.

I am not worthy to loosen the thongs of his sandals.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His winnowing fan is in his hand to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to gather the wheat into his barn, but the chaff he will burn with unquenchable fire."

Exhorting them in many other ways, he preached good news to the people.

그때에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발터 카스퍼 추기경> - 귀 기울여 듣기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면, 그분은 침묵하고 귀 기울여 듣는 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또 마음속 깊이 간직한 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귀 기울여 듣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외양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쏟고, 중요하다고 여기거나 흥미롭고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에 마냥 끌려 다닙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침묵 가운데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놓치거나 외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실로 깊은 차원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에 나는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는가?” 대림 시기는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는 법과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찬미가(Hymnus) - 대림시기 찬미가

성서적 내용을 노래하는 찬가(Canticum)와 구별되는 찬미가(Hymnus)는 비성경적인 라틴어 가사를 사용합니다. 찬미가를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노래’로 설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찬미가의 찬양은 노래로 불린다. 찬미가의 노래는 하느님을 찬양한다. 만일 찬양이 하느님을 향하지 않으면 찬미가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이 하느님을 향하나 노래로 불리지 않으면 찬미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찬미가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 ‘하느님’, ‘노래’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덧붙입니다. 찬미가는 형태에 따라 ‘산문체의 찬미가’와 ‘운문체의 찬미가’로 구분된다.

‘산문체의 찬미가’는 시리아의 성 에프렘(St.Ephrem, c.306~373)이후 동방에서 꾸준한 전통을 유지하는데 비해, 서방에서는 단지 세 개의 작품 즉 ‘대영광송’(Gloria in excelsis), ‘사은찬미가’(Te Deum)

그리고 ‘당신을 찬양함이’(Te decet Laus) 만이 보존되었습니다.

‘운문체의 찬미가’는 성 암브로시오(St.Ambrosius) 이후 발전되어 시간전례를 통해 서방교회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이 찬미가는 무엇보다 운율과 절의 형태로서 그 대중성을 잘 드러냅니다.

대림시기의 대표적인 찬미가는 “Conditor alme siderum (별들의 창조주)입니다. 라틴어 발음을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콘디토르 알메 시데룸”이 됩니다. 이 찬미가는 성 암브로시오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찬미가는 주로 대림 첫 주일 전 토요일부터 대림 기간 내내 성무일도의 저녁 기도에서 바칩니다. 전체 찬미가를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좌측은 라틴어 원문, 우측은 한국어 번역입니다.

Conditor alme siderum
aeterna lux credentium
Christe redemptor omnium
exaudi preces[voces] supplicum

Qui condolens interitum
mortis perire saeculum
salvasti mundum languidum
donans reis remedium.

Vergente mundi vespere
uti sponsus de thalamo
egressus honestissima
Virginis matris clausula.

Cuius forti pontentiae
genu curvantur omnia
caelestia, terrestria
nutu fatentur subdita.

Te, Sancte fide quaesumus,
venture iudex saeculi,
conserva nos in tempore
hostis a telo perfidi.

Sit, Christe rex piissime
tibi Patrique gloria
cum Spiritu Paraclito
in sempiterna saecula.
Amen.

별들의 창조주여
믿는 이들의 영원한 빛이시여,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여,
비천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이 죽음의 멸망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병든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약을 주셨나이다.

세상이 저물어가는 저녁에,
신랑이 혼인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고귀하신 동정 성모의
닫힌 태에서 태어나셨나이다.

당신의 강력한 능력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 권세를 고백하나이다.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여,
거룩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시어
악마의 간교한 화살로부터 지켜주소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그리스도 임금이여,
성부와 함께 성령 위로자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래 QR 코드를 찍으면
대림시기 찬미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

1. 대림시기 고해성사 - 소공동체 반 순서

- * 12월 15일(주일) - 루카반
- * 12월 22일(주일) - 요한반

*** 평일에 고해성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날짜에 성당 고해소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12월 20일(금), 7:00pm-21:00pm
- 장소: St.Vincent's Church (Aranda)

2. 성탄대축일 미사 안내

- * 12월 24일(화)
 - 6:00pm: 성탄대축일 전야 미사 (영어)
 - <St.Vincent's Church, Aranda>
 - 9:00pm: 성탄대축일 전야 미사 (영어)
 - <St. Matthew' Church, Page>
 - 주소: 12 chewings st. Page, ACT 2614
- * 12월 25일(수)
 - 3:00pm 성탄 대축일 미사 (한국어)
 - <St.Vincent's Church, Aranda>

3. 성탄대축일 미사 및 식사 나눔

* 성탄대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미사 후 식사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사목회에서는 '밥, 김치, 고기, 음료'를 준비합니다. 각 가정에서 나누고 싶은 '음식 혹은 디저트' 등을 한 접시씩 준비해오시면, 더욱 풍성한 나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4. 성탄대축일 세례식

12월 22일(주일) 미사 중에 '문서' 자매님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새해맞이 성체 조배 및 성시간

- 일시: 12월 31일, 11:15pm-12:10am
- 장소: St.Vincent's Church, Aranda
- * 작년과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하느님 사랑과 기도 안에서 고요히 맞이하고자 합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 | |
|--------|----------------------|
| 12월 1일 | 유아·청소년: 6명, 성인: 38명 |
| 12월 8일 | 유아·청소년: 22명, 성인: 54명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 | |
|--|-------|
| 화 | 저녁 7시 |
|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 전례 독서 봉사자 |

| | |
|-------------------------|------------------|
| 이번주 (12월 15일) |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
| 다음주 (12월 22일) |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 | |
|-------------------------|------|
| 이번주 (12월 15일) | 루카반 |
| 다음주 (12월 22일) | 마르코반 |

| 우리들의 정성 | (12월 7일 ~ 12월 13일)

| | | | | |
|--------------|--------|-----|-----|-----|
| 봉 헌 금 | \$ 373 | | | |
| 교 무 금 | \$ 490 | | | |
| 구민식 | 권모순 | 김정수 | 손재호 | 안영규 |
| 양홍석 | 윤현태 | 이재희 | 장호훈 | 정은영 |
| 조성희 | 주정자 | | | |

| 기도 지향 |

- * 남종삼 베드로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청하며
- * 서원석 미카엘 형제님의 건강을 위해
- * 고다인 라파엘라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 |
|--|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